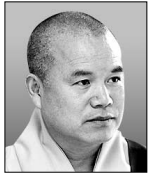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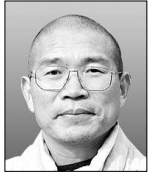
일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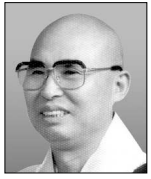
민주평통자문회의 감사패 받아  
진각종 통리원장 회장 정사는 12월 14일 서울 성동구청에서 열린 민주평화 통일자문회의 성동구협의회 연말 활동 평가회에서 감사패를 받았다.



법주사 발전방안 주제 간담회  
보는 법주사 주지 도공 스님은 12월 21일 오후 2시 궁현당에서 지역주민 대표들과 함께 법주사 발전방안 주제 간담회를 갖는다.



봉은사 새해맞이 타종식  
서울 봉은사 주지 원혜 스님은 12월 31일 오후 10시 종무과 특별무대에서 새해맞이 타종식 행사를 연다. (02)3218-4823



부산 부성정보고 이사장 취임  
부산 미용사 주지 정각 스님은 부산 부성정보고등학교 이사장 취임, 12월 13일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취임식을 열었다.



대구지역 경승모임  
대구 법암사 주지 실상 스님은 12월 13일 중부경찰서 경승모임 위촉돼 23일 오후 7시 대구지역 경승모임을 개최한다. (053)766-3747



교류 위해 필리핀여대 등 방문  
위덕대 한재숙 총장은 12월 14~17일 필리핀과의 교류활성화와 해외 인턴십 교육을 위해 필리핀여과대학, 필리핀 공과대학 등을 방문했다.

청와대불자회 송년법회



청와대불자회(회장 김병준) 송년법회가 12월 13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회장 정사 등 3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법회에서 지관 스님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펴는 불자로 거듭날 것"을 당부했다.

본원종 태허 스님 2주기 추모법회 봉행



본원종(총무원장 대화)은 12월 14일 서울 연화정사에서 중정을 역인한 태허 스님 2주기 추모법회를 봉행했다. 중회의장 대운, 포교원장 대련, 열불원장 대항, 총무부장 민혁 스님 등 100여 명이 참석한 법회에서 대화 스님은 "태허 스님의 업적과 덕망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 모두 정진하자"고 말했다.

2005 회제의 인물

'내원암 지키기' 이끈 해문 스님 친일과 후손 땅찾기에 '위헌' 논리로 대응



12월 8일 국회에서는 '친일반민족 행위자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친일행위로 취득하거나 이들로부터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해방 후 처음 마련됐다. 이 법이 통과될 수 있었던 데는 불교계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 친일행위자 이해청 후손이 내원암 경내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불교계는 친일과 재산 보호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제기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아이디어를 고안하기도 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헌법 전문의 기본 정신 즉 3·1정신을 부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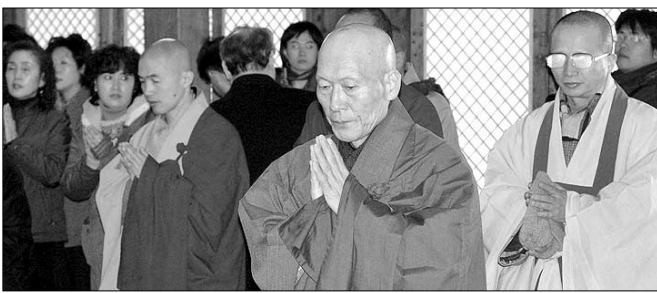
심판제청신청을 제기하고, '친일재산과 민족정기회복을 위한 조계사 쫓불법회' 등을 열어 특별법 제정 여론을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교계 활동을 이끌었던 인물이 바로 남양주 봉선사 해문 스님(사진)이다. 봉선사 총무과장 소임을 보고 있는 해문 스님은 이해청 후손이 제기한 소송에 맞서 각종 사료를 검토하고, 법전을 뒤지며 대응논리를 개발했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아이디어를 고안하기도 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헌법 전문의 기본 정신 즉 3·1정신을 부각

시킨 것으로, 민법의 재산권 논리에 밀려 친일과 후손의 땅 찾기 소송에 속수무책이던 법조계에 신선한 충격을 줬다. 해문 스님이 이끌었던 내원암 지키기 '운동'은 불교계의 역사바로세우기 의지를 세상에 널리 알리고, 봉선사의 항일 전통이 재조명받게 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해문 스님의 '활약'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스님은 문화재청을 상대로 회암사지 유물 반환소송을 전개하는 한편, 삼성을 상대로 현동사 사리구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특히 회암사지 유물 반환소송 건은 소유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던 불교계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첫 소송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현재 지상유물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해문 스님은 "내원암을 친일과 후손으로부터 지키는 것이나 문화재를 되찾아오는 것이나 넓은 의미의 역사 바로세우기"라며 "이를 통해 정의가 생동하는 부처님의 정토가 구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은식 기자 ullo@buddhapia.com

"이웃과 나누며 사는 것이 부자되는 길"

서울 길상사 창건 8주년 법회 법정 스님 법문



서울 길상사(주지 덕좌)가 창건 8주년을 기념하는 법회를 봉행했다. 12월 11일 300여 대중이 참석 한 가운데 열린 법회에서 덕좌 스님은 "불자들의 원력으로 하루가 다르게 사찰이 발전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수행공간으로 거듭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랜만에 법회에 모습을 드러낸 법정 스님(집사사 前 회주)도 특별법문을 통해 "부자가 되려하지 말고 이웃과 함께 나누며 잘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정 스님은 "길상사가 '부자절'이란 말을 듣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웃과 함께 나누고 청정한 수행과 교화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모임 때 길상사는 진정한 부자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길상사 대중들의 분발을 당부했다. 유철주 기자

해자 스님, 필리핀 고등교육문화대상



해자(서울 도선사 주지) 스님이 12월 13일 필리핀 고등교육부 청사에서 '고등교육 문화대상'을 받았다. 필리핀 대통령 직속기관인 고등교육위원회는 인종과 국적을 초월해 사회교육에 이바지한 사람을 선정해 이 상을 시상하고 있다. 해자 스님은 이날 "동남아시아 교육과 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법륜종 비구·비구니계 수계법회



법륜종(총무원장 탄공) 비구·비구니계 수계법회가 12월 12~15일 양평 법화사에서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서는 10명 사미와 1명 사미니가 각각 비구·비구니계를 받았다. 계사인 법륜종 중정 정각 스님은 "오늘 계율을 받아 참다운 불제자가 됐으니 풀러섬이 없는 정진을 이어가야 한다"고 법문했다.

불자기수회 창립 14주년 기념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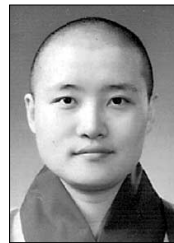


대한불자기수회(회장 김홍국) 창립 14주년 기념법회가 12월 10일 서울 전국비구니회관에서 봉행됐다. 전국비구니회장 명성 스님, 봉은사 주지 원혜 스님 등 200여 명이 참석한 법회에서 김홍국 회장은 "국군장병과 장애인들을 위한 위문공연과 봉사활동을 통해 불을 포교하는 불자기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전 도서출판 민족사대표 윤창화는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라 빌라에 810호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02)732-2403

운문사 종률 스님 대상

강원학인 논문 공모전



조계종 교육원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전국강원학인 논문 공모전에서 대상을 차지한 운문사 강원 대학교 종률 스님(사진). '법현·현장·의정·해조 스님의 기행문을 통해 본 서역 구법활동 고찰'은 인류의 문화 및 종교·역사 발전에 크게 기여한 서역구법승들의 활동이 담겨있는 4대 여행기를 분석했다. 종률 스님은 "1200년 전 문명세계를 호령했던 한국의 뛰어난 문화와 역사적 우수성을 종교적·인문학적으로 재평가 해보고 싶었다"며 논문의 배경을 설명했다. 7년 전 비구니 강사 설오 스님을 은사로 수탁사 견성암에서 출가한 종률 스님

은 "아직 초심자라 더 배우고 익힐 것이 많다"며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다들 출가자의 본분을 지키며 살고 싶다"며 소박한 포부를 밝혔다. 조용수 기자

2005 신지식인상 수상 주철장 원광식씨



주철장 원광식(성종사 대표·사진)씨가 행정자치부가 선정하는 '2005년도 신지식인' 우수수상자로 결정돼 12월 13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40여 년간 7천여 점의 범종을 제작해온 원씨는 전통범종 제작방법인 밀랍주조공법을 복원해 낸 공로 등을 인정받아 2001년 인간문화재 112호로 지정됐다. 이후에도 원씨는 광주 민주화운동을 기념한 '민주의 종' 등을 주도해냈다. 강유신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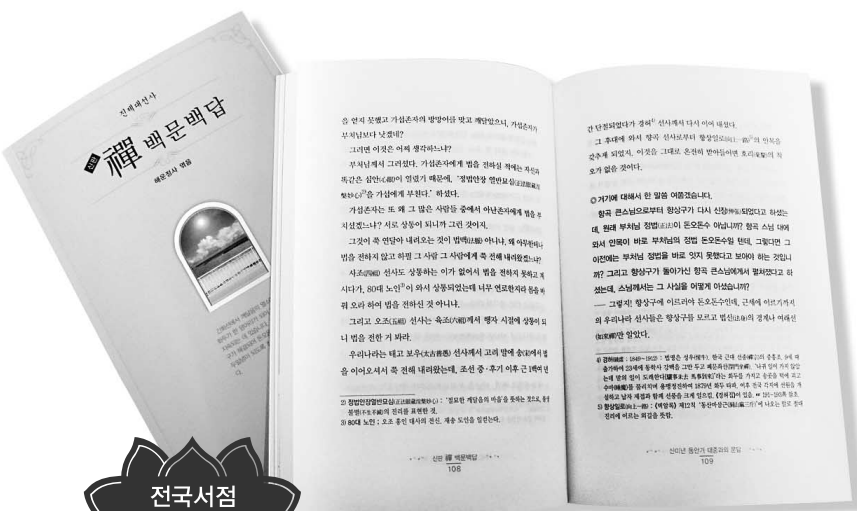
진제대선사의 법문집 신판 禪 백문백답

한 몽둥이 휘두르니 비로정상 무너지고  
벽력같은 일 할에 천만 갈등 흔적 없네!!

현재 조계종 원로위원과 동화사, 해운정사 조실을 맡아 수많은 운수남자들을 키워내고 있는 진제스님의 법문집 신(禪) 백문백답이 새로운 모습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책에는 '동화사 기초선원 좌담법문(1997년)' '설선대회회 회향법어와 무차선법문(2005년)' 등 그동안 인터넷에 공개됐던 스님의 법문과 대중들과 주고받은 문답이 생생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수행 중에 느꼈던 의문과 수행법에 대한 궁금증을 털어놓는 대중들에게 한 치의 막힘없이 답해주는 스님의 법문에서 한 명이라도 더 올바른 깨달음의 길로 이끌려는 간절한 마음을 읽을 수 있으며, 평소 일반대중에게 걸림돌이 되고 화두가 되었던 질문과 스님의 답을 통하여 우리가 일상생활속에서 어떻게 마음을 돌리고 수행해 나갈 수 있는지 그 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복송담(인연 용화선원 선원장) 남진제'로 불릴 만큼 당대 최고의 선사(禪師)로 존경받는 진제스님의 신판 신(禪) 백문백답!

이제 온라인 여시아문과 전국 대형서점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전국서점  
절찬리판매중!!

신국판 / 해운정사역음 / 현대불교신문사 / 7,000원